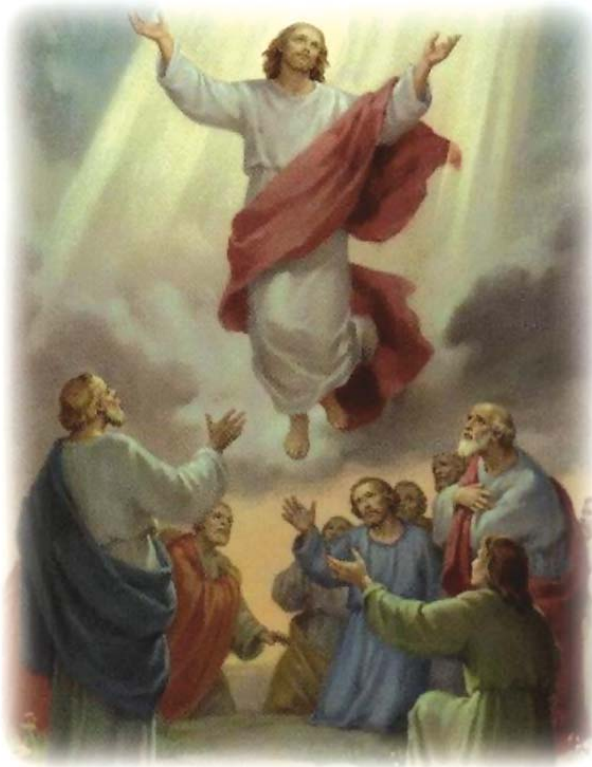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4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잃은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 번 “사랑의 하느님”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닫힌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5장 11절-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

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라.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용서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때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이웃을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당신은 용서의 하느님,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많으신 분!
당신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느헤 9,17ㄴ)

이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구약성경 구절이다.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에게 마음을 내줌으로써 온갖 축복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탕자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성자 구세주를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안배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 그 자체이지만, 하느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인간을 사랑하기로 한 번 정하신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그분은 죄인의 회개를 원하신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기억지만 하느님께서는 한 번 용서해 주신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2고린 5,19).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3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우리가 부활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밀려드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다음 다시 현세의 초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찌지’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신체가 많이 상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면, 또 늙고 병들어 초라한 모습으로 임종했다면, 부활해서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2,000년 전에도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1코린 15,35). 간단히 답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고로 저 세상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 불공평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과의 논쟁에서, 믿이가 혼인하여 살다 죽어 계속 일곱 형제와 살게 되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답하십니다(마태 22,23-33 참조). 이렇게 부활 후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히브리적 사고와 영혼불멸을 믿는 그리스 사고의 조화를 이루는 절묘한 개념, ‘영적인 몸’으로 표현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1코린 15,42-44)

복음살이, 사랑살이

옥명순 올리안나 (장승포본당 4구역 2반 반장)

장승포성당 4구역 2반은 옥명아파트 두동이 한 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다른 동 보다 적은 숫자이지요. 총 19세대 가운데 7~8세대, 평균 5~6분이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반 소공동체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늦은 저녁 8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형제님들은 늦은 퇴근으로 귀가 시간이 늦다보니 자매님들 위주로 소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공무원, 회사원, 개인사업 등 직장 일이며 돌봐야 하는 집안 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임에 나와 주신답니다.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복음 나누기를 하며 서로가 내어 놓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 일치의 힘으로 본당 일에도 열심히하지요. 연령회, 제대회, 성모회, 레지오 등 몸 담고 있지 않은 곳이 없고, 대다수가 본당에서 간부를 맡고 계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소공동체 모임에서 나온 결의 사항 실천에도 마음을 다해주십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한 주일 미사 후 본당 신자들과의 점심 나눔 때에는 밥 봉사도 기쁘게 해주시고, 더불어 성당 청소나 여러 본당 일들도 내 일처럼 살뜰히 챙기시지요.

본당 안에서의 여러 일에도 정성을 쏟으시지만 전교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 전입해온 가정마다 방문하여 기도를 해드리고, 냉담교우들도 방문하여 교구 주보와 등대지(본당주보)를 챙겨드린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육아와 직장일로 모임 참석이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모임 때마다 날

짜와 시간을 꼭 챙겨 알려드리고 참석을 권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이웃 상가 상인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비신자 권면에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저희 반에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들께도 모두들 정성이 지극합니다. 할머니 한 분은 거동에는 불편이 없으시지만 깜빡 잊으시는 경우가 많고, 모임 시간이 늦다보니 반원들이 늘 챙겨서 모셔오고, 모임이 끝나면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린답니다. 한 분은 편찮으셔서 병원에 다니시느라 댁에 계시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계실 때에는 늘 연락해서 모임에 오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전화로 안부를 여쭙기도 하지요. 한 자매님은 멍게를 무치다가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도 마침 멍게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여 곧장 할머니댁으로 찾아가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시며 늘 겸손된 마음과 깊은 신앙심, 어머니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두 분 할머니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석자가 적어도 마음 졸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반원들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구역 내에 있는 더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나눔, 사랑살이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욕심 내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4구역 2반 반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장승포본당 4구역 2반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